

[수도2 4과] King Jeongjo's Grand Procession

[1]

Hey there! Let me _____ you to a _____ piece of Korean history. Back on February 9, 1795, something _____ happened in front of Changdeokgung Palace, _____ King Jeongjo lived. There was quite a crowd g_____ there to witness a very special procession [what/that]'s still talked about in Korea today.

안녕하세요! 한국 역사의 흥미로운 한 대목을 소개해 드릴게요. 1795년 2월 9일, 정조대왕이 거처하던 창덕궁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날까지도 한국에서 회자되는 아주 특별한 행차를 목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2]

Now, imagine this: more than 2,000 soldiers, hundreds of horse riders, and lots of important officials, all _____ alongside the king and his mother with 50 musicians _____ traditional instruments. When they _____ a bridge made of 36 boats on the Hangang River, you can imagine _____! That _____ something _____ people _____ saw. Talk about a big event!

자, 상상해 보세요. 50명의 악사들이 전통 악기를 연주하는 가운데 2,000명이 넘는 군인들과 수백 명의 기마병, 그리고 많은 중요 관리들이 왕과 그의 어머니를 따라 행진하는 모습을요. 이들이 한강에서 36척의 배로 만든 다리를 건넌 때 얼마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일반인들은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대단한 행사였죠!

[3]

This was not just about _____ a show. No, it was serious business. _____ four days and _____ 68 kilometers, the procession moved alongside the king and his mother as they _____ to Hwaseong Haenggung.

이 행차는 단순한 보여주기가 아니었어요. 아니, 그것은 진지한 행사였습니다. 나흘간 지속되었고 68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이 행차는 왕과 그의 어머니를 따라 화성행궁까지 왕복했어요.

[4]

Why did all of this happen? The first thing King Jeongjo _____ [were/was] to _____. It happened around his mother's sixtieth birthday. Back in the Joseon Dynasty, just like today, _____ 60 years old had a special meaning. And his father's tomb was _____ Hwaseong Haenggung. He was planning to _____ a memorial service to _____ his _____ father. By _____ the two events, he was telling everyone _____ to him.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정조대왕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가족에 대한 공경을 보여 주는 것이었어요. 이 행사는 정조 어머니의 회갑 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회갑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묘가 화성행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는 제사를 지낼 계획이었어요. 이 두 가지 행사를 결합함으로써 그는 가족이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두에게 말했던 것이죠.

[5]

But wait. There's more. King Jeongjo was also making a statement about the Joseon Dynasty's _____. He _____ a military leader, _____ armor and _____ on a horse with his soldiers _____ in perfect order. It was a way of saying, "We're ready _____." He was really serious about _____ the Joseon Dynasty a powerful and [successive /successful] kingdom.

하지만 잠깐만요. 더 있어요. 정조대왕은 조선왕조의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는 그의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가운데,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앉아 장수처럼 차려입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지킬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한 방식이었죠. 정조는 진심으로 조선을 부강하고 성공적인 나라로 만들고자 했어요.

[6]

Now, here's the _____.: the procession also _____ Hwaseong Fortress, [that/which] _____.

In King Jeongjo's mind were big plans for Hwaseong. He wanted it _____ a _____ city with a strong military, farming, and trade as he hoped to _____ [them/it] the new capital, _____ all the political chaos in Hanyang. So King Jeongjo _____ the best _____, such as Jeong Yakyong, and let them _____ the finest architectural techniques of his time from both the East and the West to build Hwaseong Fortress.

자, 여기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이 행차는 화성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 건설 중이었어요. 정조의 머릿속에는 화성에 대한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화성을 한양의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난 새로운 수도로 삼기를 희망해서 그것을 강한 군사력, 농업, 무역을 갖춘 자급자족 도시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기 위해 정약용과 같은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고 동서양의 당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집약하도록 했어요.

[7]

There's more to King Jeongjo's story. He _____ his people well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fortress. They _____ wages and breaks during bad weather and _____ even _____ when they were sick, something [that / what] _____ at that time. Back then, ordinary people _____ typically _____ on public projects without _____. Once people _____ King Jeongjo's plan, work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came together in a _____. So, in under three years _____ the project _____, though it _____ initially _____ take about 10 years. Impressive, right?

정조대왕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정조는 성곽을 쌓는 동안 백성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임금을 받았고 악천후 시에는 휴식을 취했으며, 병이 났을 때에도 임금을 받았는데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 일반 백성들은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공공 공사에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정조의 계획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일꾼들이 한꺼번에 서둘러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공사를 3년 만에 끝낼 수 있었어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8]

Let's go back to the procession. The procession wasn't just some fancy show for ordinary people. It was actually a way for them to get up close and personal with the king. King Jeongjo set up a chance during the procession for common people to meet him and to share their concerns. This was a big deal, especially for those who couldn't read or write. They didn't have any other way to tell the king what was on their minds, so this was a direct line to him.

행차로 돌아가 보지요. 행차는 일반인에게 보여 주기 위한 그저 화려한 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 백성들이 왕에게 가까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였어요. 정조는 행차 중에 일반 백성들이 왕을 만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왕에게 통하는 직통 전화였던 셈입니다.

[9]

And here's the cherry on top: through the procession, King Jeongjo made government more accessible. During that time, the government used to hold exams to hire officials every three years. So, there weren't many chances available. He added special exams during the procession, giving more people a shot at joining the government. This move was innovative back then and made the government more diverse.

그리고 금상첨화인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행차를 통해 정조는 정부에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당시 정부는 3년마다 관리 채용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많지 않았죠. 정조는 행차 기간에 특별 시험을 추가해 더 많은 사람이 정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 조치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고 정부 구성원을 더욱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10]

And guess what? King Jeongjo didn't forget a single detail. He made sure everything was documented properly by creating records for the procession and the construction of Hwaseong Fortress. These construction records were especially a lifesaver when the fortress was damaged during wartime. They were even part of why UNESCO recognized Hwaseong Fortress as a World Heritage Site.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정조는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정조는 행차와 화성 축성에 대해 기록을 남기도록 해서 모든 것이 제대로 기록되도록 확실히 했어요. 이러한 축성 기록은 특히 전란으로 성곽이 훼손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기록은 유네스코가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11]

At first, the people at UNESCO were a bit unsure about recognizing Hwaseong Fortress as the real deal. They weren't totally convinced it was authentic. But after checking out translated documents and comparing them with the restored fortress, they finally came around and agreed that the fortress had actually been restored just the way it was meant to be.

처음에 유네스코 사람들은 화성을 진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다소 의구심을 가졌어요. 화성이 진품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번역된 문서를 확인하고 복원된 성곽과 비교한 후, 결국 생각을 바꿔 화성이 원래의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12]

And among the records of the procession, there are these amazing paintings. One painting, *Hwaneo Haengryeoldo*, doesn't just feature the king's crew, but it also shows ordinary people watching along the road. It's a different take from the usual art of that time, which only focused on important figures.

그리고 행차에 대한 기록 중에는 놀라운 그림들이 있어요. '환어 행렬도'라는 그림에는 왕의 수행원뿐만 아니라 길을 따라 구경하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어요. 이는 중요한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던 당시의 일반적인 미술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13]

So being kind to the people was a big deal for kings of the Joseon Dynasty. King Jeongjo's 1795 procession and Hwaseong Fortress stand as proof of that spirit. Hwaseong is more than just a fortress; it symbolizes a king who cared for his people. And this is a significant part of Korean cultural heritage.

이처럼 조선 시대 왕들에게는 백성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정조대왕의 1795년 행차와 화성은 그 정신의 증거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요새가 아니라 백성을 돌보던 왕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